



## ‘중국공산당의 이야기 -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동북 실천’ 전문선전소개회 장춘서



중공중앙 대외연락부와 중국공산당 내몽골자치구당위, 료녕성당위, 길림성당위, 흑룡강성당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공산당의 이야기 -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동북 실천’ 전문선전소개회가 10월 14일, 길림성 장춘시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선전소개회는 ‘동북 전면 진흥이 새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진하자’는 주제로 새시대 동북 3성 1구의 발전 이야기를 통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이 인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 생동한 실천과 적극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50여개 나라에서 온 200여명의 정당 지도자, 일부 중국 주재 외국사절과 중국 주재 외국공상업체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공중앙 연락부 부장 류진초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새로

운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 전략을 제기하고 보완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동북지역의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새시대 이래 여러 차례 동북을 고찰하고 동북 진흥에 대해 전문적으로 좌담회를 소집하여 동북지역의 진흥 발전을 위해 진백하고 방향을 가리켜주었으며 동북지역을 이끌고 고품질 발전, 지속가능한 진흥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 각국 정당과 함께 보편적 혜택과 포용을 발전의 근본 방향으로 삼아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남남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발전의 불균형과 적자(赤字)를 힘써 해결하여 어느 한 국가나 지역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용의를 갖고 있다. 인민의 복지를 발전의 기본 취지로 삼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3대 글로벌 창의를 구체화하여 각국 인민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예의혁신을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에 에너지를 부

여하면서 신흥과 미래 산업을 밝히고 전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더욱 많은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내몽골자치구당위 서기 손소빙, 료녕성당위 서기 학봉, 길림성당위 서기 황강, 흑룡강성당위 서기 허근이 현장 또는 영상으로 연설을 발표하고 상호 교류에 참가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동북 3성 1구는 동북 발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회시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있다. 국가의 ‘5대 안전’에서의 동북의 중요한 사명을 든든히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의 첫째가는 임무와 새로운 발전체계의 전략적 임무를 장악하며 힘써 신질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동북의 특색과 우세가 있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혁신구축하며 동북 전면 진흥과 지속 진흥의 토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최근년간 동북 발전은 기꺼운 국면이 나타났다. 경제사

회의 활력이 증가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향상되면서 동북의 전면 진흥은 새로운 광활한 전망을 보여주었다. 다음 단계에 동북 3성 1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개혁을 기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 발전을 계속 추진하며 목표를 확고히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과감히 밀고 나가고 실제적으로 일하면서 동북 전면 진흥의 새로운 장을 힘껏 써내려가는 것으로 동북지역 인민들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야기 공유 환절에서 3개 성, 1개 구의 부당한 업종에서 온 일반 당원과 기층 민중 대표들은 과학기술혁신, 광공업, 에너지전환, 생태보호와 국제협력 등 각도에서 동북 전면 진흥의 생동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선전소개회 기간에 동북 3성 1구 경제무역 설명회도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외빈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새시대 이래 중국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중국이 세계 발전을 위해 한 적극적인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을 목격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신심을 증강시켰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새로운 발전리념은 중국에 중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타 국가 특하는 광범한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중국공산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 학습하고 관념 혁신과 방법 혁신을 통해 전통공업의 전환을 추진하고 신형산업을 힘써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현대화의 길을 추진할 것이다. /길림일보

## 변강마을에서 청춘의 꿈을 심고 가꾼다 ‘위국수변’ 프로젝트로 밀강촌에 온 주박문 “매일매일 충실합니다”



▲ 대학생 자원봉사자 주박문

“기층에 내려가고 농촌에 내려가고 조국과 인민이 가장 수요하는 곳에 내려가자!”는 구호는 주박문을 비롯한 젊은 대학생들의 피가 끓어넘치게 했다. 보람찬 청춘의 꿈을 변경지역에 심고 변강 농촌의 진흥을 위해 봉사하는 것, 조국의 변경지역인 훈춘시 밀강향 밀강촌에서 주박문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청춘의 꿈을 가꿔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 성에서는 처음으로 천명 이상 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8월초, 전국 각지에서 온 1,511명의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은 4일간의 집중훈련을 거친 후 길림성 11개 변경현(시, 구)의 변경촌들에 달려가 1~3년간의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박문은 그중의 한명이다. “저는 길림 토배기입니다. 지난 8월달에 37명의 친구들과 함께 훈춘시 밀강향 밀강촌으로 왔습니다.” 주박문은 ‘위국수변’ 프로젝트는 착실하게 능력을 배우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곳은 우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살고 있는 밀강촌의 집입니다. 마을에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지은 인재아파트입니다.” 밀강 인재아파트 앞에서 주박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의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매우

열정적인데 우리에게 조선족 무용을 배워주었습니다. 이곳은 95% 이상 촌민이 조선족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려면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욱 잘 융합되어 우리가 향후 봉사사업을 전개하는데 편리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는 마을 촌민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독일어를 4년 동안 배운 주박문은 마을에 온 후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박문은 이곳은 산수가 수려하고 생태자원이 풍부하며 동북야생호랑이표범보호구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언어종자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곳은 깊은 문화적 저력을 가지고 있어 ‘통소의 고향’으로 불리며 마을에는 조선족 백년옛집이 두채 있다고 말했다. 밀강촌에서 일하는 동안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밀강촌의 양질 자원을 리용하여 마을의 문화관광산업을 만들고 또 밀강촌을 인기 마을로 되게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밀강촌은 G331 대환선의 관광선상에 있다. 주박문과 대학생들은 이곳의 옛집과 통소문화를 선전하고 특색 문화 민속 체험을 자원봉사 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박문과 대학생들은 몇개 팀을 만들고 각각 행동했다. 주박문이 소속된 소조는 조선족 백년옛집에 의하여 려행사진촬영 체험 항목을 계획하였다. 주박문은 밀강촌에 온 후 매일매일 충실하게 지내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변경 건설에 참여하고 농촌 발전을 목격했으며 자신도 능력을 단련하고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배운 지식과 구체적인 실천을 결합하여 밀강촌을 더욱 훌륭하게 건설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에 부딪칠 수도 있지만 한걸음 한걸음 착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하고 주박문은 신심가득히 말했다. /길림일보



▲ 훈춘시 밀강향 밀강촌 전경

## 연변, 2024 중국관광상품대회서 금상 4개 수상!

10월 11일, 2024 중국특색관광상품대회 및 2024 중국관광상품대회가 절강성 의오시에서 개최된 가운데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광상품이 금상 4개, 은상 4개, 동상 2개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길림성 전체 수상 상품수의 50%에 달한다.

대회 참가를 위해 연변에서는 전주를 대상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지역적인 10여가지 제품을 선정해 대회에 참가시켰다. 그중 유명식기수세미(有名洗碗巾), 친구막걸리(亲久米酒), 러조사과비빔밥장(丽祖苹果拌饭酱), 연변우리황소장죽임(延边牛

犁黄牛酱牛肉干)이 금상을 수상하고 조선족플라주손목가방(朝鲜族拼布手腕包) 시리즈, 연소레트별커피(延小礼特色咖啡), 금강산김치(金剛山泡菜), 명연박조창의커피잔(明渊博雕创意咖啡杯)이 은상을, 조도부후설당떡(朝都府红糖年糕), 한식부소

고기힘줄(韩食府牛板筋)이 동상을 받았다. 수상 상품은 10월 13일에 열린 제 18회 중국이문화관광상품거래박람회에 전시되어 연변 문화관광 상품의 인지도를 높였다. /연변신문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의 남호공원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동화속 세계에 온 듯 싶다.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잎은 열렬하고 자유분방한 대자연의 선명한 색채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펼쳐준다. /길림일보

## 연길시, 3개 ‘전국 100강 현시’에 선정

최근, 중국 중소도시 발전지수 연구과제팀과 국신중소도시지수연구원이 <2024년 중국 중소도시 고품질 발전지수 연구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길시가 3개의 ‘전국 100강 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길시는 경제와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개선에 힘입어 3개의 ‘국가 100강 현시’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각각 ‘2024년 도 전국 친환경 발전 100강 현시’ 47위, ‘2024년 전국 신형 도시화 품질 100강 현시’ 63위, ‘2024년 전국 과학기술혁신 100강 현시’ 74위이다. 최근년간, 연길시는 시종 친환경 전

환 발전을 주선으로 발전과 생태를 동등하게 중시하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 3대 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였으며 순환산업 체계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친환경(绿起来)’, ‘부유(富起来)’의 조화롭고 통일된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했다. 동시에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기점을 혁신에 두고 혁신으로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동력에너지원을 창출하며 질적 변혁, 효율성 변혁 및 동력 변혁을 서둘러 추진해 특허 신청과 권한 부여 수가 다년간 전 성 현역 현과 시들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건 유경봉 기자